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청년농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정재길 기자 승인 2025.03.04 23:06



[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]

[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]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(지사장 이돈문)는 2월 24일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 또한,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한편,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 및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지난해 39개의 농가에 23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한,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정재길 기자 ynkkiller@hanmail.net

<저작권자 © 한국영농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